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관련 당국자는 이번에 바뀐 입시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평준화 이후 '인물'을 배출시키는 것보다 정형화된 보통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교육정책의 지표라고 믿고 있는가. 입선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보고 '견수'를 줄이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쉬쉬거리면서 안으로 굽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정성으로 인해 자녀들을 낙담한 청소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학생들은 무발자 유훘 같은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의 '자유선언'을 우려하고 있는 어른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있는가?

위의 질문들은 오늘날 한국의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안에 관하여 모두가 불만이다. 학부모도 불만이고, 당사자인 학생은 죽을 절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대학교 현재의 인재 선발과 양성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기업제도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내보낸다고 불평하고,



불자 세상보기

한진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교육시스템의 총체적 위기

심지어 그런 제도를 만든 교육당국자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장관들은 조급증에 빠져 있다. 자기 인기 중에 탁월한 정책을 수립해서 위로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또 역사에 남는 일을 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너무 서두른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비판세력의 정책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새로운 정책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 있었다. 또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

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온방낭량(溫房狼飡)이, 뒤죽박죽이다. 지난 5월 6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교육의 최고정책입자도 현실의 위급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연일 시끄럽다. 교육부의 내신등급제에 대한 일선교사와 학부모의 반발, 종교교학생의 두발규제에 대한 집회, 학업진행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소 자살한 학생이 금년 들어 20명이라는 보

도가 터져나왔다. 서울대 등의 논술고사 시행발표, 해외 조기유학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조 4800억원을 송금했으며, 조기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대학교육의 사회 도구 부합성'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52위였다는 보도 등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실패자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지식의 흡수만 강조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또 막대한 사회교육비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많지만 수십만 명의 학생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교육수준도 이런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난해하고 적응하기 힘들면서 공부할 한 학생의 질도 세계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자신의 수준에 걸맞게 대학을 결정하고 직장에 취업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1934년 '매일신보'에서 '석가여래상의 미남석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주남산에 있던 불상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뒤 총독부관저에 모셔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인 총독부박물관에서 이 불상이 총독부 관저 안에서 비바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 불상을 옮겨서 여러 가지 대항사건이 터지지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 불상을 통해서 기독교장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불편한 심정이 표출된 것이다. 2005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이 불상을 전시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이 불상의 어깨 부분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겨서 대어가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다시 불교계는 어떤 상황인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어느새 청와대 불상은 통치자와 불교계의 미묘한 관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인연을 따라 청와대에 모셔진 이 불상은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다. 조선시대에 귀중심

'미남 석불'의 수난

처, 그 가운데 임금의 침전에는 백성들이 계절별로 농사짓고 김집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인 경지도병풍(耕織圖屏風)이 설치되었다. 이는 임금님이 항상 드나들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정치에 힘쓰라는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불상 역시 임금 침전의 경지도처럼 대통령이 불교계의 연원을 헤아리기를 바라는 상징이 된 것이다. 원래 이 불상은 경주 도지동에 있는 유덕사(有德寺)라는 절에 모셔진 것이다. 유덕사란 신라시대 태대각간(太大夫) 최유덕이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절이다.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미남석불'로 칭한 이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때의 이상적인 형상과 조화로운 비례를 갖춘 조각이다. 지금은 서울시영평문화재 제24호지만, 보물로 승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명품인 것이다.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보니, 이 불상은 보호막에 안전하게 모셔져 있다. 다만 자연풍화로 인하여 어깨에 금이 가고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고 한다. 더 이상 손색이 없도록 보존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불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면서 불교계의 연원이 담긴 상징이기 때문이다. 정명부(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노인 자살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거든 부모를 잘 섬기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대집경)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 명당 71명꼴인 셈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 10만 명당 2명에서 7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노인 자살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원인으로 '전통 가치관의 붕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자녀들이 당연히 부양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부양의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또한 아직 바닥 수준이다. 자녀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옮겨가는 사이에서 한국 노인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어느 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우화에 '홀스포메르'라는 말이 나온다. 홀스포메르는 젊은 시절 경마에서 우승을 하는 등 한 때 잘나갔지만, 얼룩배기인 데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젊은 말에게 조롱과 폭행을 당한다. 그러자 이렇게 말한다. "늙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약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늙고 병들고 불구가 된 것이 내 허물은 아니잖나?" 부처님오신날, 가정의 달인 5월, 홀스포메르의 외침이 불현듯 떠오른다. 남동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봉축 프로그램 다양해졌지만...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한 결과 예년에 비해 양·질적 수준이 괄목하리만큼 좋아졌다. 방송 편성도 부처님오신날 당일이 아닌 1주일 내내 균형있게 이어졌다. 또 그동안 타종교 기념일에 비해 생색내기식의 초라한 편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봉축 프로그램도 감칠맛을 더했다고 평가된다. 이는 세계적 흐름인 불교와 수행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불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 방송사들의 불교적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 발굴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어느해 보다 풍성하면서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은 여전히 많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삶과 생활 속에 녹아든 불교의 모습이 아닌 고행과 산중이라는 틀에서 불교를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봉축 프로그램을 단지 '수행'이라는 한정된 범위 속에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불교를 알리는 불교계의 노력이 절실할 요구된다. 박찬익(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어처구니없는 '미륵' 사이트

서방에서 온 미륵(www.maitreya.co.kr)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가. 처음에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는 불교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다 정말 그 황당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사이트는 서방의 미륵이라면서 '라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지구 위의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외계인(엘로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데 문제는 이들이 불교의 미륵부처를 차용한다는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는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 '마이트레야 라엘'은 모든 불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서방의 '미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엘을 소개하면서 불경도 끊임없이 인용했다. <아함경>에서부터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모든 예언이 들어 있다는 것 물론 이런 류의 활동들에 대해서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륵부처가 구원불이라는 개념을 지나다보니 '미륵'이 불교와 관련없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면 "도를 아십니까?" 부류도 자신들의 종교 교주가 미륵임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다. 불교의 구원불인 미륵부처님과 관련된 사상·교리는 불자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로당도양교 미륵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늘어남만만 불교를 모르는 이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윤성석(서울시 양서구 목동)

어르신 포교에도 관심을

최근 한 일간지의 기사를 보다가 '종교'와 '행복한 노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 다른 부분을 읽었다. 그에 따르면 초고령 어르신들 가운데 신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르신에게 종교는 입박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계속 느끼고 발견하면서 각종 상실감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종교가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 종교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포교도 중요할 것 같다. 고통받고 소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와 간병도 우리들이 아닐까 싶다. 종교를 가진 어르신들이 행복하다면 어르신의 마지막을 살필 수 있는 호스피스 역시 불자들이 많이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불교계에서 좀더 어르신들과 호스피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권현석(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장, 국민회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치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마대에 오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 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대도진법은 말과 글에 붙어있지 않고 마음 자리에 가려진 지성 찾는 경신도통 대법회

경신도통의 근본은 태세배꼽에 있고, 대자연과 산천초목 만물에 일체의 생명과 운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으며, 무구공명과 수명장수법은 마음자리에 가려진 배안에 경계 불은 저승사자와 삼시구충을 물리내어 건강하고 큰부자되는 경신 도통 대법회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에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신술귀무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정진법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이라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박야 잘 안자는 잠신에 병되어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 이룬 뜻을 풀어줄 수 있는 기도종의 기도가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돈돈 신비의 기도가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 인간,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근자되는 비법인것이고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 경신인 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선현들이 수행한 방법이며 도술, 의술, 침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채신법이며 도개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올유년 6월 5일이 망종일에 경신이 들어 이름모를 괴질과 각종 병으로 잠신의 병에 병이 되어 고생하시는 해이므로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종은 악령의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저능하로 병이 되어 각종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법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어 큰 부자 되소서.

특별 일생대운,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 입제 : 양력 2005년 6월 4일 토요일 음. 4. 28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6월 5일 일요일 음. 4. 29 (해시) 021821-6622 / 821-7767 0161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곡대길 (신착선 점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경신도통과 대도진법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웅조미특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증 본산 **태일합장**